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 출 자	성낙송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	-----------------------

I. 경과

- 소위원회는 2011. 3. 9.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진행

[참석위원]

성낙송, 임성근, 정병두, 조국, 하태훈(이상 가나다순)

[진행방식]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및 제2기 양형기준안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에 관하여 제4차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전문위원단의 논의 결과 및 미합의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의 진행

[심의대상]

구분	주무전문위원
●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결과 검토의견	정준화
● 양형기준안 의견조회결과 검토의견	정준화
● 수사협조 양형인자 반영방안	정준화
● 사기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	홍준호
●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	홍준호
● 사기범죄군 양형기준 관련 추가 논의사항 검토	심재철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회신 검토	정준화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	홍준호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	홍준호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	홍준호

- 대상범죄군별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II.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1. 심의 대상

- 정준화 전문위원,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결과 검토의견”

2. 심의 결과

- 강도치사,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는 데 이견이 없음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약취·유인 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III. 제2기 양형기준안

1. 심의 대상

- 정준화 전문위원, “양형기준안 의견조회결과 검토의견”
- 정준화 전문위원, “수사협조 양형인자 반영방안”
- 홍준호 전문위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
- 심재철 전문위원, “사기범죄군 양형기준 관련 추가논의사항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회신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회신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회신 검토”

2. 심의 결과

가.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다단계 사기를 처음부터 기획 또는 구상하고 공모한 사람들과, 나중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 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직위가 팀장·본부장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죄책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조직적 사기로 규정할 경우 양형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다단계 사기의 주체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조직적 사기 유형의 사례로 명시”**하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범위의 한정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다단계 사기 조직의 간부급으로 처음에 모의의 과정을 거친 자로서 자기의 노력보다 과도한 이득을 취한 자로 한정하자는 의견
 -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과도한 이득을 취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범위가 모호해지므로 제외하고, 모의 참여 또는 중요한 간부 역할 두 가지 요건만 명시하여, 처음부터 사기 조직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나중에 합류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간부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의견
- ☞ 토의결과, **다단계 사기의 범위 한정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다단계 사기’의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다단계 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투자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법률상 이득액으로 인정하는데, 실제 피해액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법률상 이득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다단계 사기에서는 ‘실제 투자액’ 또는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대법원 판례가 실제 투자액이 아니라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득액으로 판시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실제 투자금액을 완벽하게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여타 조직적 사기와 상이한 세부 유형분류 기준을 규정하면 양형기준이 모호해지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
- 최초 투자금만 피해액으로 볼 경우 사기가 1회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서 조직적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와 달리 다단계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실은 공범성이 내포된 사람들로써 터무니 없는 이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어서 다른 조직적 사기와 피해금액을 달리 평가할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투자액을 재판 과정에서 기록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 ☞ 토의결과, 다단계 사기에서 ‘실제 피해액(실제 투자액)’이 법률상 이득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는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검토를하기로 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중 단서조항(다만,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제1안] 단서조항을 유지(다수의견)

[제2안] 단서조항을 삭제(소수의견)

- 위 단서조항을 존치할 경우, 그 다음에 “원래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게 감경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뇌물,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하는 데 이견이 없음

(3) 양형인자

- ‘단순가담’은 ‘소극가담’의 양형인자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음

나. 공문서, 사문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특별감경인자인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수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제1안]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리하여 2개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다수의견)

[제2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통합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소수의견)

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의 양형인자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데 이견이 없음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겁거나 다수인의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감경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